

포천경찰서 경무위, 성탄절 축하 예배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배)는 구립 22일 경찰서 강당에서 경무위원회(위원장 한운주) 위원 및 경찰관, 전·의경 등 80여명이 참석해 성탄절 축하 예배를 하고 경찰관 및 전의경에 양말 등 선물을 나누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탄절 축하예배는 성탄절을 앞두고 격무에 고생하는 경찰관 및 전·의경들을 격려하고 포천의 편안하고 안전한 치안 유지 열원을 위한 기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무위원의 축복기도, 경찰서 신우회에서 준비한 특송, 선물 증정 및 식사제공 등 알차고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무위원들의 뜨거운 기도는 우리 포천시의 안전과 평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포천경찰의 번창을 다짐했다. 지형배 기자 94spice@hanmail.net

地域文化 창달 위한 화합과 결속 다져

포천문화원 주최 2005 포천문화인의 밤



포천문화원은 구립 22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각급기관 단체장과 문화가족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 포천문화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구립 22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박운국 포천시장과 홍성훈 포천시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각급기관 단체장과 문화가족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 포천문화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모의 시점에서 각 분야에서 지역 문화 발전에 헌신해 온 문화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개척행사 및 문화행사, 전시회, 만찬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만구 문화원장은 새로 추대된 자문위원 추대회 및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좋은책 읽기운동 독후감 입상자, 문화학교 제4기 수료생에 대한 수료증과 봉사상을 시상했으며, 이만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각 분야에서 수고하신 관계자들의 노고와 협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문화의 고장임을 자랑스러워 여기는 송고한 열을 이어받아 널리 선양함으로써 특색 있는 지역 교유의 문화정체성 확립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러진 문화행사는 축시낭송을 비롯 지난 4개월간 포천문화학교에서 배운 꽃꽂이, 사군자, 전통 및 현대사, 우리춤 체조, 대금, 기타 연주,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만찬을 가졌으로써 지역문화정체성을 위한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반월아트홀전시장에는 구립 22일부터 22일까지 문화학교에서 배운 꽃꽂이, 사군자, 전통 및 현대사, 우리춤 체조, 대금, 기타 연주,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만찬을 가졌으로써 지역문화정체성을 위한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韓國의 선비정신 · 17

청직(淸直) 관리요, 가사문학(歌辭文學)을 꽃 피운 송강 정철(松江 鄭澈)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철의 시정을 길러 주는 꿈의 요람이었다. 송강(松江)이라는 호도 이곳 죽계천(竹鏡川)의 별명이었다.

정철은 먼저 고봉 기대승(高峰 奇大升)에게 수학하였고 이어서 라운 그렸지만 소년시절 빼어난 화관을 겪으면서 불의에 대한 증오와 정의를 지키려는 강직한 마음의 씨가 학문을 배움에 앞서 생활속에 깊이 심어졌다.

1551년(명종6) 아버지가 석방되자 서울의 집을 정리하고 선조의 산소가 있는 전라도 담양 창평으로 내려갔다. 풍상에 시달리던 유배(流配) 옥고(獄苦)에서 벗어나 비로서 안주할 땅을 찾았다.

수확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정철도 비로서 훌륭한 스승을 찾아 학문을 닦을 수 있었다. 이곳의 산수는 그의 어린 상처를 씻어 주었듯 뿐만 아니라 시정(詩情)을 길러 주었고, 장원급제할 학문을 익혀 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성산(星山)기슭 사시사할 푸른 나무 송강(松江)변을 따라 절경을 이루고 있는 기암괴석 소나무 사이에 자리잡은 정자, 겨울이면 설총매(雪中梅), 명봉산(鳴鳳山)의 풍물과 절경은 시인 정철에게 영감을 주었다.

1562년(명종17) 주찬을 내려치하한 명종은 정철을 성균관 전직에 임명했다가 곧이어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에 임명, 지평에 임명된지 얼마 안되어 한 옥사가 일어났다.

그는 이 옥사를 다스림에 있어 자기 인격만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피고는 명종의 종형(從兄)인 경명군(景明君)이었다. 경명군이 그의 처가의 재산을 탐내어 이를 빼앗을 의도로 자기의 처남을 죽이고 말았다. 이것이 탄로되어 경명군 부자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명종은 종형 경명군의 일인만큼 송강에게 내밀히 분부하여 극형을 면하게 하도록 특청하였다.

그러나 송강은 국법을 어길 수 없다고 고집하여 경명군 부자를 사형하고 만 것이다. 이 중대한 옥사를 해결한 송강의 처사는 명종의 비위를 크게 거슬리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송강은 청한직(淸澗職)에서 밀려나 좌랑(佐郎), 전직(典職), 도사(都事) 등으로 오랫동안 전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상감의 내청까지도 어기면서 국법을 준엄하게 집행한 송강의 청백(淸白) 강직(剛直)한 성격을 역력히 찾아 볼 수 있었다. 전형적인 한국 선비의 기상이다.

1566년(명종21) 사헌부 지평에 복귀되었다가 복관(北關·함경도) 어사(御史)에 크게 거슬렸다. 20년전 최수의 가족으로 언소를 비비고 떨며 고생하던 관복령에 이제는 산천 초목도 떠나는 어사가 되어 다시 가게 된 것이다. 지방행정과 민정을 살피고 돌아와 울곡과 함께 호당(湖堂)에 피신되었다.



자유기고

마흔문학회 성과와 전망

강동희(마흔문학회 사무국장)

이제 겨우 보름 남짓 남은 2005년 을유년 한해를 보내면서 꿈같이 지나간 1년을 돌이켜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적인 건 속에서 호주머니 사정도 그에 비례하여 지푸러 없어져만 갔습니다. 그럴수록 마음도 각박해지는 것 같아 지난 1년 내내 땀과 눈물, 슬픔과 허탈한 마음을 안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가슴은 갈수록 허해져 가고 그래도 땀과 의미 있는 일을 하려 애썼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992년부터 작년까지 13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3회를 치러 온 사진전을 치루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아쉬움으로 남는 하지만 그 어느해보다도 더 의미 있고 뜻있는 한 해를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시집을 발간하고 첫 시화전을 여는 등의 새로운 일과 솔로무, 소 요 문화회 등과의 새 교류를 트고, 문화원의 문화 교실 수강을 하는 등의 새로운 인연을 많이 만들었던 새로운 한 해로, 호주머니는 약해졌어도 가슴은 풍요로웠던 흥만 한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4년에는... 예술인동우회의 문화분과를 '마흔문학회'란 이름으로 격상시켜 본격적인 문학회로서, 새로운 문화회로 새 출발을 하였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즐거운 글쓰기를 위하여 '생활속의 즐거운 문학'이란 구호를 핵심으로 삼고 이를 추구하는 작고 소박한 문학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2004년 12월, 마흔 15집을 마흔 문학회의 이름으로 첫 발간을 하였으며 2005년도

의 예산을 예우회와는 별도로 경문화재단과 포천시에 신청을 할 수 있었고, 그 결실로 2005년 도엔 더욱 알차고 충실해진 마흔 16집을 만들 수 있었으며, 또한 포천문학의 새 지평을 여는 첫 시화전인 '제1회 마흔 시화전'을 성공적으로 치러 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포천문학에 새 역사를 쓴 쾌거였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포천사에서 지원 받은 문화예술통금 250만원은 320여쪽의 마흔 16집을 만드는데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큰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100여쪽이나 늘어난 분량과 내용이 양과 질 모두에서 급진장을 하였던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늘어난 페이지만큼 문화회와 모임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열과 성이 높은 참여율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져 마흔문학회의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마흔문학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큰 도움을 주신 포천시 당국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회원들이 사기가 양양되어 한층 문화에의 뜨거운 열기가 더해 가는 이즈음 포천시에 신청했던 2006년도 지원금이 올해 지원금 보다도 50만원이 적은 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적지 않은 실망을 한 것 또한 솔직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은근히 더 늘지 않을까 내심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낙담이라 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 마흔지가 부실해지지 않는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것

도 사실입니다. 하긴 이마저도 그 후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근 동두천의 소요문화회는 동두천시로부터 400만원의 지원금으로 소요문학 11집을 발간한 것에 비하여 볼 때 포천시의 지원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인구가 8만이 조금 넘고 우리 포천시는 15만이 넘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가 더 유리하지만 실제적인 지원은 의외로 부족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국과 관계자분들의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포천시의 문예진흥금 시행규칙을 보면 단체의 경우 2년을 연속해서 지원을 받으면 3년째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흔의 경우 자칫 내년도(2007년) 마흔 18집은 발간이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간행물인 책자의 발행은 시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발행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지만 회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이곳에서 마흔같은 작은 문학단체를 적극적으로 후원에 주는 독지가를 만나는 것도 힘든 일이며 큰 힘이 되어주셨다고도 나서서 기업을 전무후무한 것이 솔직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좋은 책을 만들겠다는 의욕은 넘치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없고 그 때문에 책자의 발행을 멈춘다는 것은 너

무도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

이런 위기를 느끼지 않고 오로지 작품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날은 언제 올까요? 요원하게만 느껴집니다. 꿈같은 생각만입니다. 작자들이 마음껏 자기의 기량을 발휘 할 수 있고 더 나은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 포천시를 그려봅니다. 꿈꾸어 봅니다.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작가들도 더욱 열심히 능력과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고 그런 기회, 그런 날들이 왔을 때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었음에도 작가들의 역량부족으로 알차고 훌륭한 책을 펴내지 못하는 경우 자칫 내년도(2007년) 마흔 18집은 발간이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간행물인 책자의 발행은 시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발행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지만 회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흔은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나은 문학회가 되기 위하여 배전반이라고 하지만 회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이곳에서 마흔같은 작은 문학단체를 적극적으로 후원에 주는 독지가를 만나는 것도 힘든 일이며 큰 힘이 되어주셨다고도 나서서 기업을 전무후무한 것이 솔직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좋은 책을 만들겠다는 의욕은 넘치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없고 그 때문에 책자의 발행을 멈춘다는 것은 너

이해조문학회 12월 정기모임

원앙도 발제 후 文學 토론

이해조문학회(회장 홍을표)는 구립 26일 오후5시30분 대진대학교에서 12월 정기모임을 갖고 '원앙도'를 발제하고 토론하며 한우 문학회 발전방안에 관한 토의를 가졌다.

이날 원앙도 발제는 김창호(포천문인협회 이사)회원이 실시했으며 김 회원은 "이해조 작품을 바탕으로 포천의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원앙도'는 개화기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두 양반 집안의 이야기로 재재가인의 결합이라는 과정 속에서 개화의 이상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해조문학회는 2005년1월11일 발기하여 창립하였으며 2005년 6월 세미나를 통해 포천시 신북면 출신 신소설 작가 이해조 선생을 널리 알릴 포천의 자랑스러운 고취는 물론 새로운 문학 창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 온 모임이다. 이날 모임에는 박운국 포천시장, 이천목·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이해조문학회가 포천 사회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홍을표 회장은 "이해조문학관 등 중·장기적 사업을 정하고 세미나 등 이해조 선생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모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Advertisement for a memorial service for Mr. Cha Heon-yeon (謹挽權奇夏先生 明情輕名迎). It lists the deceased's name, dates, and a list of attendees including names like 松園 李曉鍾 and 明情輕名迎.

Advertisement for a poetry reading event (초대 漢詩) and a sonnet reading (초대 詩). It features the name of the organizer, Lee Won-yong (이원용), and a list of attendees including names like 松園 李曉鍾 and 明情輕名迎.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52)

100년 전(1906년) 포천

작년 1905년의 100년 전은 군내면이란 이름으로 현내면이 바뀌고 현청이 신읍리(새장터, 새읍)로 이전했으며, 군내면의 입시우편소(現 내우체국)가 개설(신설)되었으며 내 고향 포천에서 출생한 의병장 면암 최익현 선생께서 의병을 일으키셨으나 순창에서 체포되어 1906년 대마도로 유배 중 단식 순국하셨는데 광무 30년이었습니다.

1910년 통한의 망국조약인 한·일 합방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8월 29일이었다.

이 해에는 영평초등학교, 이듬해에는 포천국민학교가 개교하게

된다. 1914년 영평군이 포천군으로 편입 12개면 88리로 일제 강점기의 통치로 들어갔다.

1919년 3월 1일 포천 최초의 3·1 만세운동이 송우리에서 발생 3월 3일에는 가재리에서 300여명 3월 29일 1천여 명의 만세 시위운동이 소흘면 왜놈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한다.(무봉, 좌무, 신부서도 만세운동이 30일까지 계속된다.)

중앙에서는 1906년 왜놈들이 통감부(統監府)를 2월에 설치하고 '하세가와' 초대 통감이 임시로 취임한다.

3월에는 전 판서 민응식이 흥

주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주한 외국 공사관이 모두 철수하였다.(1905년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 상실) 장지연, 윤호정 선생 등이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를 조직하였으며, 미국 하와이에서 비밀결사 '혈성단(血誠團)'이 조직되고 면암 최익현 선생이 임병찬 선생과 의병을 일으킨 것이 이해 태인에서였는데 '무성서원(武城書院)'이었다. 천

도교에서 '만세보'를 창간하였으며, 신불석(申煥石)이 경성도 평해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최초의 한글 소설 '혈의 누'가 만세보에 연재된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바로잡습니다.

본지 제325호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이야기 151 '포천의 사냥터'를 '미술가 이찬호'로 바로잡습니다.